

공동직장보육시설 70개소 건립 계획

여 96. 11. 8

노동부 총2백39억 투입

노동부는 내년중 총2백39억을 투입하여 전국 주요공단을 중심으로 '공동직장보육시설' 등 70개소를 설립하겠다고 10월 22일 발표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및 근로복지진흥 기금 1백20억원으로 전국 주요공단 또는 기업 밀집지역에 33개의 보육시설을 건립하고 건립비 2억7천만원씩을 전액무상 지원해줄 계획이다. 또 1천인 이상 사업장 등 대기업에 대해서는 설치비를 저리로 융자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과 별도로 고용보험기금에서 3%의 저리로 최대 3억원,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하고 1백억원을 편성했으며 1천인 이상 사업장중 부지가 1만평 이상인 1백32개 업체에 대해 37개의 보육시설 설치를 지도할 계획이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보육교사 1인당 인건비를 월 40만원씩 지원해 주되 시설설치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하고 시설운영비 전액을 손비로 인정해 주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을 비과세하는 등 세제상의 혜택도 부여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중으로 운영지침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해 늦어도 내년 5월까지의 설립지역과 운영자 등을 선정,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